



“헐크 포효 세리머니, 그것 참...”

TALK! TALK! 베이스볼

5월도 막바지입니다. 으레 이때이면 앞서가는 팀과 뒤로 처지는 팀이 있게 마련인데, 올해는 모든 팀들이 포도송이처럼 뭉쳐 연일 혈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야구계의 뒷얘기를 전하는 ‘톡톡 베이스볼(Talk Talk Baseball)’은 ‘은퇴식 전문업체’로 떠오르고 있는 LG의 사연부터 풀어볼까 합니다.

LG 전설 단골은퇴장…성적은 왜 이래?

●LG는 레전드 은퇴식 전문업체?
지난 주말 한국프로야구에 큰 족적을 남긴 KIA 이종범이 LG전에서 은퇴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LG 한 관계자는 “우리는 레전드 은퇴식 전문 구단”이라며 웃더군요. 이상하게 한국프로야구의 전설들이 은퇴를 할 때면 상대팀으로 많이 나섰다는 뜻인데요. 실제로 LG는 이번 이종범 은퇴식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레전드의 은퇴식에 둘러리리 선 적이 많았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1997년 ‘불사조’ OB 박철순이 4월 29일 잠실구장에서 프랭크 시나트라 의 ‘마이 웨이’에 맞춰 감독의 은퇴식을 할 때도 상대팀은 바로 LG였죠. 최근만 해도 그렇습니다. 2009년 히어로즈 정민태와 한화 송진우의 은퇴식 때도 상대팀은 바로 LG였습니다. 2010년에는 히어로즈 김동수의 은퇴식이 LG전에 열렸죠.

사실 지난해에도 SK 김재현이 6월 25일 LG전에 맞춰 은퇴식을 하려고 지도자 연수 도중 귀국하기도 했으나 장마로 인해 무산돼 10월 삼성전에 열린 적도 있습니다. 이만하면 LG는 ‘은퇴식 전문업체’로 부를 만하지 않을까요? LG 구단 관계자는 “우리 마음 씀씀이도 예쁘게 성적이 왜 안 나냐”며 ‘자학개그’를 펼쳐 주변을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이만수 현역맨 경중경중 뛰더니...”

●‘파이팅인가, 비매너인가’ 헐크를 보는 상반된 시선
헐크의 포효에 대해 뒷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SK 이만수 감독은 턱아 웃에서 선수들보다 더 액션이 큰데요. 결정적 순간에 홈런이 나오면, 당사자보다 더 큰 세리머니를 취하기도 합니다. 이 감독 본인은 “미국에서도 아저씨들 감독 등은 나보다 동작이 더 크다. 선수들과 함께 호흡하기 위한 내 스타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 팀은 이런 헐크에 대해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턱아웃이라지만 상대팀에게도 뻔하다 보인다. 과도한 세리머니는 자제하는 것이 동업자로서 예의다. 당하는 팀 입장에선 기분이 나쁘다”는 것이죠. 하긴 이 감독은 현역시절에도 ‘경중경중’ 홈런 세리머니 때문에 잦은 ‘응징’을 당하

곤 했습니다. 하루라도 명이 가실 날이 없었겠죠. 이 덕분에 팬들에게는 즐거움을 선사하기도 했지만, 상대팀 입장에선 또 다른 모양입니다. 일단 이 감독은 자신의 스타일을 굽힐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헐크의 포효’ 과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베이스 방출 한화 “바티스타까지 불뚱”

●새 용병은 안 오고, 있는 용병마저 불안
한화는 지난 주 골치덩어리였던 용병 브라이언 베스를 방출했습니다. “베스를 보냈다는 건 대체 용병 영입작업이 마무리 단계라는 의미”라고 말했고요. 하지만 일주일이 넘도록 새 용병 계약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믿었던 마무리 바티스타까지 속을 썩었습니다. 주말 넥센과의 목동 3연전에서 스윙을 했지만, 자칫 바티스타 때문에 1승2패로 끝날 수도 있겠죠. 25일에는 9회 2점차를 지키지 못하고 동점을 허용해 승부를 연장까지 끌고 갔고, 27일에는 4-0에서 마운드에 오르자마자 초구에 박병호에게 3점홈런을 맞아 순식간에 그라운드를 살얼음판으로 만들었으니까요. 처음 몇 경기는 ‘그럴 수 있지’ 하며 넘겼던 한화도 점점 바티스타의 제구에 대해 불안감이 깊어져가는 눈치입니다. 하지만 최근 불뚱 상황을 생각하면 바티스타를 안

쓸 수도 없는 상황이죠. 새 용병은 오지 않고, 있는 용병은 속 썩이고... 한화의 한숨이 깊어갑니다. 그나마나 베스는 28일 휴스턴 산하 트리플A팀과 계약을 맺고 새 출발을 했다는군요.

박병호 “날아가는 홈런베트, 무서워”

●박병호,내 맘대로 안 되는 베트 컨트롤?
넥센 박병호는 올 시즌 마침내 잠재력을 폭발하고 있죠. 지난주까지 벌써 10홈런을 기록하며 3위에 올라 있고, 타점은 38개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박병호의 홈런은 맞는 순간 홈런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호쾌하다는 게 매력이죠. 또 홈런시 배트를 내던지는 동작도 트레이드마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박병호는 이 때문에 고민이라더군요. 그는 얼마 전 팀 동료인 외국인투수 브랜든 나이트에게 지적을 받았으며 머리를 굴적거리더군요. 나이트가 “그런 동작은 고쳐야 한다. 미국에선 상대 기분을 상하게 하는 동작이라 투수에게 빈볼을 맞을 수도 있다”고 조언을 했다는 겁니다. 박병호는 “타격 후 후의식중에 배트가 그렇게 뱅겨져 날아간다. 예전부터 고치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심성이 착한 박병호는 가능한 상대팀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는 않는데, 자신도 모르게 날아가는 배트만 보면 ‘아차’ 싶은 모양입니다. 스포츠1부

한주성 14K 완봉쇼…덕수고, 대전고 잡고 4강 진출

66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

북일고 윤형배 6이닝 9K 무실점 V
내달 2일 덕수고 vs 북일고 준결승



덕수고가 9이닝 14탈삼진 무실점의 완봉 역투를 펼친 한주성을 앞세워 대전고를 눌렀다. 덕수고는 28일 창원 마산구장에서 열린 제66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대회 결전판기 주말리그 왕중왕전(동아일보사·스포츠동아·대한야구협회·창원시 공동 주최) 8강전에서 대전고를 6-0으로 꺾고 4강에 진출했다. 덕수고는 신일고에 7-0, 7회 강

우 폴드게임 승리를 거둔 북일고와 6월 2일 같은 장소에서 준결승전을 치른다. 북일고 윤형배는 이날 6이닝 2안타 9탈삼진 무실점 호투로 승리를 이끌었다. 덕수고 선발투수로 나선 한주성은 9이닝 동안 114개의 공을 던지면서 2안타 14탈삼진 무4사구 무실점의 눈부신 피칭을 했다. 특히 이날 허용한 2안타 중 정타는 6회 1사 후 대전고 우익수 구태구에게 맞은 우중간 안타가 유일했을 정도로 위력적이었다. 3타자 연속 3루 땅볼로 삼자범퇴를 시킨 5회를 제외하고 매 이닝 삼진을 속아냈고, 3회와 8회에는 총 6타자를 연속 삼진으로 돌려세우는 괴력을 발휘했다. 덕수고 타자들도 힘을 냈다. 1회 2사 2-3루서 임병욱의 결승 2타점 중전적시타로

경기결과	1	2	3	4	5	6	7	8	9	R
팀	0	0	0	0	0	0	0	0	0	0
대전고	0	0	0	0	0	0	0	0	0	0
덕수고	2	1	0	0	0	0	0	3	X	6

경기결과	1	2	3	4	5	6	7	8	9	R
팀	0	0	0	0	0	0	0	0	0	0
신일고	0	0	0	0	0	0	0	0	0	0
북일고	2	6	0	0	0	1	X			9

기선을 제압하더니 2회 2사 1-2루서 유영준이 추가점을 냈다. 3-0으로 앞선 8회 대거 3점을 뽑아내며 승부에 쐬기를 박았다. 한주성은 6일 강릉고와의 1회전 경기에서 선 3이닝 2안타 1사사구 무실점한 뒤 교체돼 구원 등판한 안규현에게 승을 양보해야 했지만, 2번째 등판에서 9이닝을 홀로 책임지며 승리투수가 됐다.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트위터 @hong927



덕수고 선수들이 28일 대전고와의 8강전에서 승리한 뒤 하이파이브를 하며 4강 진출을 자축하고 있다. 창원 | 장승윤 동아일보 기자 tomat99@donga.com

UP&DOWN

(5월22일~27일)

넥센은 이래저래 화제다. 8연승 선두 질주에 이어 김병현의 호투로도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5월 넷째 주 가장 돋보인 팀은 KIA였다. KIA는 안방에서 한화, LG와의 2차례 3연전을 모두 스윙했다. 이종범의 은퇴식을 더욱 빛나게 만든 1주일이었다. 스포츠1부



주간 타율 0.368 김원섭 최고의 별

●경기=목동 한화-넥센전(25일)

소문난 잔치에 불거리도 풍성했다. ‘미래의 메이저리거’로 평가받는 류현진(한화)은 7이닝 2실점, ‘과거의 메이저리거’ 김병현(넥센)은 6이닝 1실점의 호투로 야구팬들을 매료시켰다. 역전, 동점, 재역전으로 박빙 승부까지 이어져 양 팀 팬들의 마음은 ‘두근두근, 쿵쾅’ 거렸다. 상·하위팀간 대결답지 않은 명승부였다.

●선수=KIA 김원섭(주간 타율 0.368, 타점 9개, 득점권 타율 0.625)

KIA가 6연승을 달리는 동안 가장 빛난 타자는 김원섭이었다. 6경기에서 김원섭의 타율은 0.368, 특히 득점권 타율은 0.625에 달했다. 이종범의 은퇴식이 펼쳐진 26일 LG전에선 4타점을 올리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리그 최고의 구원투수로 거듭난 LG 유원상도 김원섭의 불방망이를 막아서진 못했다.

●장면=롯데 황재균의 동점 3점홈런(23일 대구 삼성전)

황재균은 0-3으로 뒤진 8회 1사 2-3루 찬스서 권오준으로부터 동점 3점홈런을 뽑아냈다. 이 한방으로 탄력을 받은 롯데는 결국 4-3 역전승을 거뒀다. 막강 삼성 불펜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대포’였다.

김선우 2.1이닝 5실점…부활 와르르

●경기=잠실 넥센-LG전(23일)

LG는 넥센만 만나면 묘한 최면에 빠진다. 최성훈의 견제 실책과 이병규(7번)의 본헤드플레이, 오지환의 실책 등 귀신이 홀린 듯 에러를 연발했다. 넥센은 LG의 실책으로 얻은 기회를 모두 득점으로 연결시켰다. 잘 나가던 LG는 또 센에 발목을 잡혔다. ‘넥센 공포증’을 쫓 수 있는 방법은 진정 주키치밖에 없단 말인가.

●선수=두산 김선우

22일 문학 SK전에서 5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투수가 될 때까지만 해도 부활의 징조가 보이는 듯했다. 그러나 27일 잠실 롯데전에서 16승 투수의 위엄은 어디에도 없었다. 3이닝도 버텨내지 못한 채 무너졌다. 2.1이닝 9안타 5실점. 두산은 총격의 홈 3연전 스윙 패를 당하고 말았다.

●장면=SK 이만수 감독의 마운드 삼집(27일 대구 삼성전)

8회말 삼성 이승엽 타석을 앞두고 마운드에선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됐다. 교체된 투수 박희수가 마운드에 파인 홈이 깊어져 투구에 어려움을 호소한 것. 이에 심판진과 이만수 감독이 직접 삼을 들고 나섰다. 선수를 위한 살신성인도 중요하지만, 감독의 품위도 생각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해질녘, 실책 부르는 목동의 ‘블랙홀’

일몰시 생기는 ‘푸른 블랙홀’의 정체는?
25일 목동 한화-넥센전. 4회까지 무려 9개의 삼진을 잡으며 호투하던 류현진은 5회말 첫 실점을 했다. 유격수 하주석의 실책성 플레이가 빌미가 됐다. 넥센 강정호가 친 공은 평범한 유격수 플라이였지만, 하주석이 타구를 놓쳐버렸다. 결국 2루타로 기록됐다. 다음 날 넥센 야수들도 비슷한 경험을 털어놓았다. 2루수 서건창은 “해가 질 무렵, 하늘이 순간적으로 짙은 파란색이 된다. 이 때 내야 뜬공이 나오면 순간적으로 하늘 속에 공이 들어가 버린다”고 밝혔다. 하주석의 실책성 플레이가 나온 시각은 오후 7시47분께. 경기가 열린 25일 서울의 일몰시각은 오후 7시43분이었었다. 비단 목동에서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넥센 3루수 김민우는 “올 시즌은 아니지만, 예전에 문학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토로했다. 잠실을 홈으로 쓰는 LG 중견수 이대형 역시 해질 무렵 생기는 ‘푸른 블랙홀’의 존재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 전영민 기자 setupman@donga.com 트위터 @setupman11